부산상공회의소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6년 9월 22(화) 12:00 이후

담당 : 공공사업본부 양성규 과장
(051-990-7133)

부산상의, HJ중공업과 함께하는 추석맞이「안전 송편 나눔 행사」개최

부산상의·HJ중공업 공동으로
조선 도크에 훈훈한 추석 분위기 연출

▶ **고용노동부·부산시 지원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으로 추진**
▶ **영도조선소 원·하청 근로자 2,800여 명에 한가위 송편과 음료 제공**
▶ **원청별 맞춤형 '7사 7색' 복지 첫 현장‥원청 추가 참여로 근로자 혜택 키워**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양재생)는 22일(화) 오전 11시 30분, HJ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추석을 맞이하여 HJ중공업 및 협력업체 직원 2,80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 송편 나눔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부산상의가 부산광역시·고용노동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부산 조선산업 지역상생형 격차 완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7개 원청사별 맞춤형 복지 확대를 위해 '7사 7색'이라는 이름으로 선보인 원·하청 상생 프로그램이다.

오늘 행사가 더욱 특별했던 이유는 부산상의가 마련한 한가위 송편 세트에 HJ중공업에서도 별도로 준비한 식혜를 더해, 귀성을 앞둔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위해 원청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원하청 상생이라는 사업 취지를 잘 살렸기 때문이다.

행사에 참여한 한 협력업체 직원은 "추석을 앞두고 점심시간에 송편과 식혜를 받으니 잠시나마 명절 분위기가 나서 기쁘고, 바쁜 시기에도 근로자들을 챙겨주는 자리가 마련돼 고맙다"고 말했다.

HJ중공업 관계자는 "올해 처음으로 참여하고 있는 협력사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에 회사도 함께할 방법을 고민했다"면서, "작은 성의지만 명절을 앞둔 현장 근로자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 김태균 공공사업본부장은 “협력업체 직원들의 복지 확대를 위해 원청사가 주도하는 7사7색 프로그램을 도입했는데, HJ중공업에서 적극 나서줘서 명절을 앞두고 좋은 분위기가 연출되었다” 면서, “앞으로도 원청사들의 개별 현장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협력사 근로자들의 복지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 는 뜻을 전했다.

부산상의는 앞으로도 혹한기 현장 지원, 문화·여가 등 다양한 계기별 특화복지를 이어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원청의 후속 참여가 협력사 근로자 혜택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첨 부 1. 행사개요 1부.

「HJ중공업 한가위 상생 떡나눔」추진계획(안)

❖ **특화복지(7사 7색)** 과제로 한가위를 맞아 HJ중공업 원하청 근로자에게 상생 떡세트 제공
❖ 현장 근로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명절 온기 나눔을 통한 **원하청 일체감 및 복지체감도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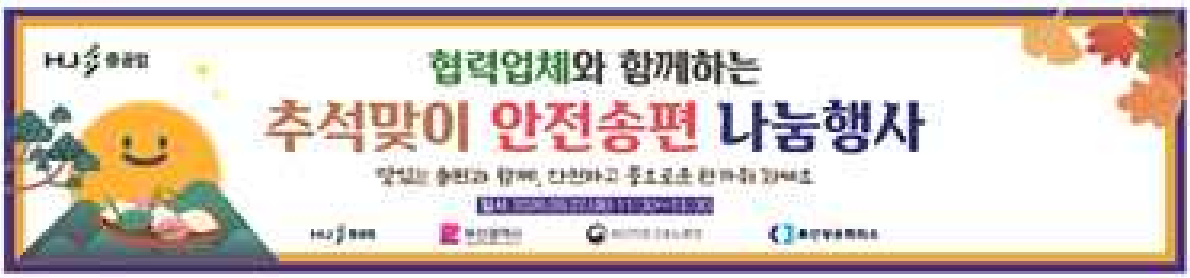
추진개요

○ 일　　시: 2026. 9. 22.(화) 12:00 ~13:00(중식시간 배부)

○ 장　　소: HJ중공업 영도조선소 구내식당

○ 참여대상: HJ중공업 원·하청 재직 근로자 2,800명

○ 지원품목: 한가위 기념 떡 세트(총 4종: 떡 2종, 월병 1종, 찹쌀약과 1종)

○ 구매조건: 세트당 5,000원 상당 맞춤 구성(개별 포장 및 현장 배송 포함)

○ 지원방식: 중식 식사시간 활용, 구내식당 배식·퇴식 동선에서 근로자 직접 수령